

# 프로농구 SK·DB 하반기 반등 성공할까

## 지난 시즌 공동 1위 무색... 최하위 추락 부상 선수 복귀·외국인 선수 활약 변수

프로농구 서울 SK와 원주 DB는 2019-2020시즌을 공동 1위로 마쳤던 팀들이다. 시즌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중에 종료됐지만 '2강'을 형성하며 강팀으로 군림했던 SK와 DB는 2020-2021시즌 개막을 앞두고도 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규리그 절반이 지난 현재 두 팀은 SK가 8위(12승 15패), DB는 최하위(7승 20패)에 머물러 있다.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공동 5위(14승 13패) 팀들과 승차는 SK가 2경기, DB는 5경기다.

남은 27경기에서 반격에 나설 경우 따라붙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전반기에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쉽지 않은 격차기도 하다.

먼저 SK는 최근 10경기 2승 8패로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공교롭게도 최준용이 동료 선수의 부적절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노출한 사건과 맞물려 상위권을 달리던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최준용은 이후 연습 과정에서 무

릎을 다쳐 이번 시즌 더 출전이 어려워졌고, 안영준도 부상 중이다.

3일 DB와 맞대결에서 이겨 5연패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가라앉은 팀 분위기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DB는 재계약 대상자였던 치나누 오누아쿠가 합류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김종규와 윤호영, 허용 등이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최하위까지 밀려났다.

최근 새 외국인 선수 안테 메이트를 영입해 분위기가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3일 최근 4연패 중이던 SK를 상대로 전반까지 50-41로 앞서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추승균

SPOTV 해설위원은 "SK는 팀 분위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밀 위니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초반보다 위력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다"며 "슈터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추승균 위원은 "DB는 국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나 몸 상태가 다소 떨어져 보인다"며 "새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 조금씩 맞춰간다면 지금보다 좋은 경기 내용을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

8연승을 내달리며 2위에 3.5경기 차로 앞선 단독 1위를 질주하는 전주 KCC는 이번 주 부산 kt(8일), 인천 전자랜드(10일) 등 중위권 팀들을 만나 10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제주Utd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송주훈. 사진제공=제주유나이티드

## 제주Utd, K리그1 복귀 박차

### 4일 U-20 월드컵 8강 주역 국가대표 출신 송주훈 영입

K리그1 무대 복귀를 앞두고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중앙수비수 송주훈(26)을 영입, 수비라인을 보강했다.

제주는 중국 슈퍼리그 선전 FC에서 활약했던 센터백 송주훈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세부 계약 조건은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송주훈은 각급 연령별 대표팀과 A 대표팀을 거친 수준급 수비수다. 2013년 터키 U-20 FIFA 월드컵 8강 진출의 주역으로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도 활약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2017년 10월 10일 모로코전에서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원발을 주발로 하는 송주훈의 장점은 제공권 장악이다. 190cm, 83kg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타점 높은 헤더 능력으로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특히 U-23 대표팀 시절 이창민, 안현범, 이찬동, 류승우 등 현재 제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빠른 팀 적응도 기대케 한다.

송주훈은 "제주라는 좋은 팀에 입단해서 정말 기쁘다.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이끈 원동력이 수비였던 만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PGA투어 통산 상금 '천만장자' 200명 시대

### 제주 출신 강성훈 유력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받은 상금이 통산 1000만 달러(약 108억 5765만 원)가 넘는 선수가 올해는 200명을 넘어선다.

200번째 천만장자로 유력한 후보는 강성훈(34)이다. 강성훈은 작년까지 954만9730달러를 모았다. 45만270달러를 더 받으면 천만장자가 된다.

2017년 이후 한 시즌도 상금 수입이 10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강성훈이 올해 1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산 상금 199위 플리트우드와 206위 강성훈 사이에 6명이 포진했지만, 모두 은퇴했거나 최근 활약이 미미한 선수라 강성훈이 200번째 천만장자가 될 것이 유력하다. 923만5350달러를 모은 안병훈(30)도 올해 1000만 달러의 사나이를 예약했다.

강성훈과 안병훈은 그러나 943만 4868달러를 모은 트로이 메티(미국)와 940만995달러를 쌓아놓은 브랜던 그레이스(남아공) 등과 200번째 천만장자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인으로는 PGA투어에 처음 진출해 8승을 올린 최경주(51)는 3215만 달러를 벌어들여 통산 상금 순위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부록스 켈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보다 상금 순위가 높다. 연합뉴스



덩크슛 누가 막을 쓰나 지난 3일(현지시간) 멤피스의 페덱스 포럼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멤피스 그리즐러스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멤피스의 브랜던 크라크가 덩크슛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94-108로 레이커스가 승리했다. 연합뉴스

## 호날두 통산 758골 축구황제 펠레 넘어

### 2골 1도움 우디네세 4-1 완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포르투갈)가 새해 첫 경기에서 멀티 골에 도움까지 올리는 맹활약으로 개인 통산 758골을 기록하며 '축구황제' 펠레(브라질·757골)를 넘어섰다. 유벤투스의 대승을 이끌었다.

유벤투스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세리에A(1부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호날두의 2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우디네세를 4-1로 물리쳤다.

이날 멀티골을 작성한 호날두는 개인 통산 758골(클럽 656골·A매치 102골·이하 친선전 득점 제외)을 기록해 '축구 전설' 펠레가 현역 시절 작성한 757골(클럽 680골·A매치 77골)을 뛰어넘으며 개인 통산 역대 최다골 2위 자리로 올라섰다. 역대 최다골 기록은 1930-50년대 맹활약한 오스트리아 출신 골잡이 요제프 비칸(2001년 사망)의 759골(클럽 730골·A매치 29골)로 호날두는 대기록에 1골 차로 추격했다.

다만 비칸의 득점 기록은 해외 매체별로 차이가 난다.

국제스포츠통계재단(RSSSF)은 비칸의 개인 통산 득점을 805골 이상으로 기록한 반면 브라질의 '플라카르 매거진'이 2019년 4월 집계한 통계에는 759골로 나온다. 연합뉴스

## 한국 바둑 신진서, 32년 만에 최고 승률

### 데뷔 첫 상금 10억원 돌파

지난해 연간 승률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한국 바둑계의 명실공히 일인자로 자리 잡은 신진서 9단이 데뷔 첫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기원은 2020년 상금 순위 집계 결과 신진서가 10억3800만원을 벌어들여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2001년 이창호 9단, 2014년 이세돌 9단, 2019년 박정환 9단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10억원 돌파한 프로기사가 됐다.

지난해 76승 10패로 연간 승률 88.37%를 기록한 신진서는 1988년 이창호 9단이 세운 종전 최고 승률

88.24%(75승 10패)를 32년 만에 갈아치웠다. 놀라운 승률을 앞세워 다승·승률·연승 1위에 이어 최우수선수(MVP)까지 석권한 신진서는 데뷔 첫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며 상금 순위도 처음 1위에 올랐다.

신진서는 지난해 LG배 우승상금 2억원과 삼성화재배 준우승 상금 1억원 등 세계대회에서 4억1000만원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GS칼텍스배·포탈 코사골 최고기사 결정전·용성전·KB바둑왕전 우승과 삼성화재배에서 7승 등으로 3억2000만원을 수확했다.

또 KB바둑리그와 중국 갑조리그를 통해 3억4000만원의 수입을 보태 10억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경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신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필도법상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일일행사 조선비밀수사단(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날 10:45 앙코르 키어로스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설맞이 나는 오늘 11:00 푸리키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뽀롱뽀롱 유치원 8:30 두더지공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나스리뷰 플러스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15:45 몬터키 16:15 울리 앤 루 16:30 뽀롱뽀롱 유치원 18:00 생방송 퓌릭 보너하니 19:30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세상다반사 13:50 김성애니 습지를 부탁해 13:55 지구를 지키는 20기러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김성애니 습지를 부탁해 14:35 이슈 픽 별과 함께 스페셜 15:00 TV소 진풍경(재) 16:00 사사간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축구야구월드(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2 15:30 TV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재난탈출 생존왕(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외우외우 콜링프렌즈 12:50 뽀롱뽀롱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5:10 2시 뉴스 외선 15:20 2시 뉴스 산다 16:00 기쁜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북면가영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오(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장개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사사간건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일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볼륨업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신년 기획 역사재난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신년 기획 노래가 좋아 21:30 일일행사-조선비밀수사단 22:10 일일행사-조선비밀수사단 22:40 목말방의 문제아들 1부 23:20 목말방의 문제아들 2부	18:10 테마기획 길 19:10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MBC 특선영화 스윙키즈 23: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8:50 필도강산 GoGo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화 세상에 이면일이 1부 21:30 순간포화 세상에 이면일이 2부 22:00 펜트하우스 1부 22:40 펜트하우스 2부 23:15 불타는 청춘 1부 23:55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8:00 세계의 99방송 8:30 기후변화연구소 9:00 KCTV 뉴스 9:30 헬리키즈 퀴즈쇼 13:10 UHD 특선 14:00 세계의 99방송 17:00 KCTV 뉴스 17:10 다문화코미디드라마 공무원 내마기 20:00 헬리키즈 퀴즈쇼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5일**

김종삼 지단(해마)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안포교 교수(010-5233-6136)

**36년** 유식과 안정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 49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안정이 보장되는 은행의 적금이나 투자가 적절. 60년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외로움이 몰려온다. 여행도 좋고. 72년 협회나 동호회 등 모임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4년 주관이 뚜렷지 않을 때 선택의 무게가 내게는 보약이 된다.

**37년** 운전석이나 사무실에서 안정을 취해도 좋음. 49년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내 도움이 미약하지만 상대에게는 크다. 61년 활동이 왕성해도 내맘대로 할 수가 없다. 73년 남의 말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 도움이 없된다. 중동구마 주의. 85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이 생기니 귀가는 늦지 않도록 할 것.

**38년** 상가 또는 식당에 갈 일이 생기니 음식은 주의해야. 50년 문서를 이동수는 길하나 임시생이 있으면 부모는 정보분석 등 전문가와 상담. 62년 작은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 일을 하라. 74년 시험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은 컨디션이 좋다. 86년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협조가 있다.

**3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모임 초대가 온다. 51년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63년 의욕은 넘치나 막상 해야 할 일의 중요성과 가치때문에 고민한다. 75년 변동. 변화가 필요.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도 필요. 87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는게 좋다.

**40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 52년 소꿉친구가 생긴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라. 64년 원칙과 품행함보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대처하라. 76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라. 88년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간 또는 헛사랑과 조심.

**41년** 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제거방법을 찾아라. 53년 매나 임에서 이익이 있으나 술은 자제. 65년 자녀로 인한 고민 같듯이 오니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다. 77년 모임, 약속이 생기기도 하니 술은 다소 자제. 89년 인연이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조기 귀가.

**42년**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가정사로 고민이 생긴다. 이해와 배려가 묘약. 54년 실속이 적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자중해야 한다. 66년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이다. 중요한 계약은 내일로 미루라. 78년 재테크 투자에 길하다.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90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다.

**43년** 내 노력을 인정받고 관청의 인허가 서류에 이익이 있다. 55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67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9년 전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은 인정을 받는다. 91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인한 인정을 받는다. 신중하게 하라.

**44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기망은 비웃음에 대상이 된다. 5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금전상 이득이 있는 날. 68년 일한 만큼의 이익 생기고 취업이나 개업은 신중하게 판단. 80년 직장이나 취업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92년 변동하는 것은 불리하니 신중을 기해야.

**45년**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일의 성과가 있다. 57년 상태를 감싸 안아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 이해를 많이 해줄 것. 69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과 공유하라. 81년 부동산이나 세일즈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3년 나의 체력이 왕성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6년** 자녀나 수하인의 자문이나 상담이 생긴다. 58년 이익을 먼저 논하지 말고 대의에 동참하는게 좋다. 70년 새로운 방식 또는 손재주로 인한 사업은 진전이 있고 장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82년 마음분야, 의류업, 약제사리업은 기쁨이 많다. 9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고 마음이 즐겁다. 문서관이 있다.

**47년** 경쟁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 등이 오니 신중하고 친목에 어울려야 좋다. 59년 형제중에서 애경사가 생겨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1년 장업, 매매, 전문업은 활동이 분주하고 이익 증가. 83년 해를 부러워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조심. 95년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정에 치중 필요.